



광주시, 분쟁해결 통합모델 타시도 벤치마킹

광주시는 지난 11일, 평택시와 거제시 및 거제시의회를 견학했다. (사진)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평택시 공동체활성화 전문관, 거제시의회 및 거제시 관계자 등이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대표이사 민문식) 및 양림동 일대(양림문화센터, 양림청년장작소, 양림 어울림센터, 양림동주민자치회, 동개비소통방)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광주시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마을분쟁해결 통합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시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주민자치회와 소통방 결합 모델 등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공유하며, 평택시와 거제시가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노병하 기자



서부경찰, 도박범죄 근절·사기 예방 활동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 매월동·풍암동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박범죄 근절 및 신·변종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서부경찰은 봉황농장, 누리식품, 흥길동수산 등의 업체를 방문해 업주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법과 신종사기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판매 물품에 위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봉황농장 업주 이성주(56)는 “주변에 도박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꼭 알려주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객 A씨는 “주변에도 대응요령을 알려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장명본 광주 서부경찰서장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도박, 신·변종 사기와 같은 악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원에 치료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2일 쌍촌시영3단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힐링 원에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16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지 내 공동화단 조성 및 ‘홈가드닝’ 체험이 함께 진행됐다. 입주민들은 화분을 만들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서로 소통하며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광주도시공사와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민의 일상 속 여가 활동을 지원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일상 속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품격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 참여형 복지공동체 활동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도시공사, 초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가 지난 15일 적십자사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을 위해 200만원을 기부해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광주도시공사에서 후원한 200만원으로 준비된 삼계탕 120인분은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의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배식했다. 올해 광주도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성년의날 맞이 자립준비청년 선물세트,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생태복원 봉사활동, 여름감치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홍 회장은 “무더위로 힘드신 어려운 이웃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온정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창원한마음병원, 화순전대병원 벤치마킹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암 전문병원의 성공 모델을 주목받으며 벤치마킹을 위한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

16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을 찾은 창원한마음병원 경영진과 의료진 20여 명에게 체계적인 암 치료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창원한마음병원 경영진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창원한마음병원 하중식 의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암 전문병원으로서 국내외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의료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워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창원한마음병원 방문단에게 감마나이프실을 비롯해 핵의학과, 치료방사선과, 인터벤션실, 병동 등을 견학하게 하고 질의응답을 하며 기법을 전수했다. 노병하 기자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직업훈련사진 공모전 시상식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기업 성장력 및 근로자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사진 공모전’을 개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공모전은 ‘빛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업훈련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총 32점의 사진이 출품됐으며, 최우수상에는 송운산업의 네 팔 출신 야무(MAGAR YAMBAHADUR) 직원의 작품이 선정됐다.

야무씨는 현장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교육 훈련, 학습하는 모습을 사진에 잘 표현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소영 기자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지난 15일 82세를 일기로 별세한 1980~90년대 트로트 제왕 현철(강상우·사진)에 대한 가요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16일 뉴스와 통화에서 “항상 얼굴이 스마일이셨잖아요. 무명의 고생한 시절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셨던 선배님”이라고 울먹였다.

재작년에 현철 자택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이 회장은 “그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괜찮으셨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가수 박구윤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저희 아버지께 늘 하시던 말씀이 ‘구윤이 나 주라, 내가 키울게’라며 늘 저를 예뻐하시고 업고 키워주신 가요계의 큰 별, 현철 큰아버지께서 하늘 나라로 여행을 떠나셨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어린 시절 현철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린 박구윤은 “오랜 시간 투병 끝에 작고하셨기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큰아버지 가시는 길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수 김수찬도 소셜 미디어에 고인의 사진을 올리며 “선생님 그곳에서는 평안하시라. 신인 때 잘 챙겨주셨는데… 함께 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곧 비러 가겠다”고 추모했다.

박성서 대중음악 평론가는 현철에 대해 매우 서민적이고 누구에게나 친근함을 주는 ‘오랜 친구’ 같은 가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철 씨는 따라 불렀고 멤버들은 라이브와 화려한 퍼포먼스도 화답했다. 이어진 양코르 무대에선 객석을 향해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트레이 키즈의 진가를 빛냈다.”

이날 공연에는 5만여 명이 몰렸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음악 축제 ‘아이 데이즈(I-Days)’에서도 헤드라이너로 나서 7만명을 동원했다.

인트로 음악과 함께 무대에 오른 멤버들은 정규 3집 ‘파이브스타’ 타이틀곡 ‘특’을 시작으로 ‘땡’, ‘슈퍼볼(Super Bowl)’, ‘탑라인(TOPLINE)’, ‘소리꾼’, ‘아이템(ITEM)’, ‘도미노(DOMINO)’, ‘매니악(MANIAC)’ 등 20곡을 선보이며 열기를 더했다. 팬들은 스트레이 키즈의 히트곡을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현철, 대한민국 가수 수명 늘렸다”... 추모 계속



스트레이 키즈, 英 하이드파크 무대 장악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사진)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음악 축제 ‘브리티시 서머타임 하이드파크’를 뜨겁게 달궜다.

16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열린 이 축제에 K팝 보이그룹 최초이자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날 공연에는 5만여 명이 몰렸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음악 축제 ‘아이 데이즈(I-Days)’에서도 헤드라이너로 나서 7만명을 동원했다.

인트로 음악과 함께 무대에 오른 멤버들은 정규 3집 ‘파이브스타’ 타이틀곡 ‘특’을 시작으로 ‘땡’, ‘슈퍼볼(Super Bowl)’, ‘탑라인(TOPLINE)’, ‘소리꾼’, ‘아이템(ITEM)’, ‘도미노(DOMINO)’, ‘매니악(MANIAC)’ 등 20곡을 선보이며 열기를 더했다. 팬들은 스트레이 키즈의 히트곡을

따라 불렀고 멤버들은 라이브와 화려한 퍼포먼스도 화답했다. 이어진 양코르 무대에선 객석을 향해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트레이 키즈의 진가를 빛냈다.

유럽 무대를 거침없이 가로지른 스트레이 키즈는 다음달 미국에서 기세를 이어간다. 오는 8월2일 미국 시카고 그랜드 공원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시카고’(Lollapalooza Chicago)에 또 한번 헤드라이닝으로 출연해 현지 팬들과 만난다.

이어 오는 19일 오후 1시 미니 9집 ‘에이트(ATE)’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칙칙뼌(Chk Chk Boom)’으로 활동한다.

스타디움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월드투어 ‘도미네이트(dominATE)’도 연다. 월드투어는 8월24~25일과 31일~9월1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총 4회 연다.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을 순회한다. 뉴스